

2013년 요르단 총선 평가 및 향후 정국 전망

박재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jepark@kiep.go.kr, Tel: 3460-1165)



차 례 ●●●

1. 머리말
2. 2013년 요르단 총선 결과
3. 2013년 요르단 총선 쟁점
4. 향후 정국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3년 1월 23일 치러진 제17대 요르단 하원의원 선거에서 온건개혁성향의 이슬람중도정당이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
 - 과거와 마찬가지로 왕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지역·부족 기반의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 당선됨.
 - 이번 선거로 이슬람중도정당은 하원 내 최대 야당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 개혁세력을 포함한 주요 정치 연합(bloc)과 정치연대(coalition)를 구성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함.
- ▶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으로는 헌법 및 선거법 개정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유가를 포함한 물가 안정이었음.
 - 무슬림형제단과 이슬람행동전선을 비롯한 반정부세력은 식료품 및 유류의 가격상승 억제 등 경제적인 요구 뿐만 아니라 왕권 축소, 선거법 개정, 부정부패 척결 등 정치적 개혁을 요구함.
- ▶ 한편 개혁세력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치인과 일반 국민은 왕정을 지지하고 있어 반정부시위가 정치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국왕과 정부는 반정부시위대의 요구를 다소 수용할 것이며, 하원 또한 현 왕정 내에서 정치권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 향후 요르단은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요르단은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범아랍권과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하여 우리의 중동 지역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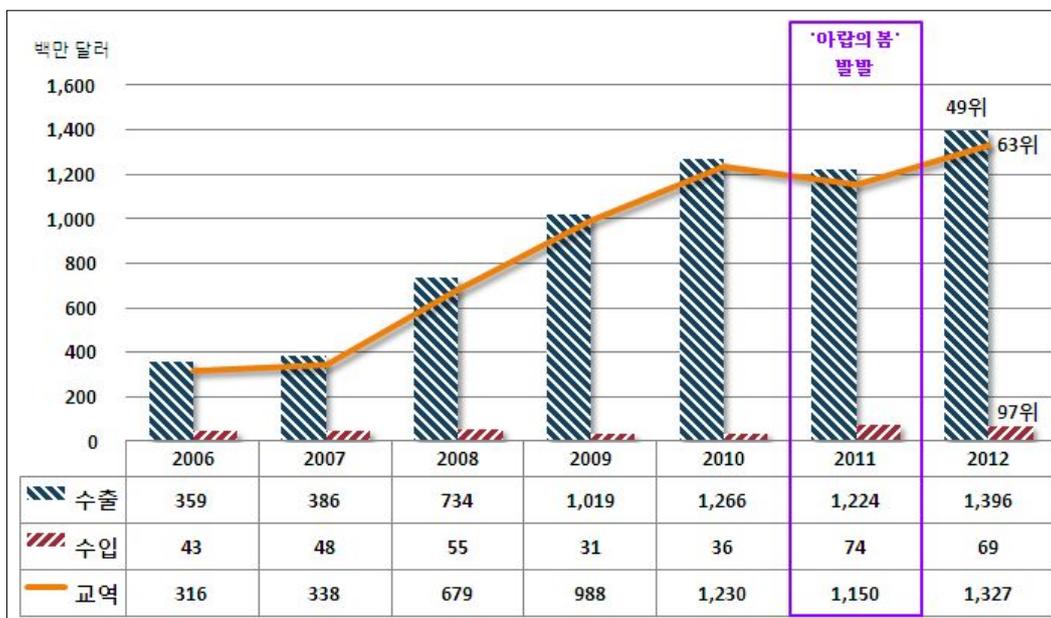
■ 제17대 요르단 하원의원 선거에서 온건개혁성향의 이슬람중도정당이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대 민주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함.

- 대다수의 요르단 국민이 왕정에 호의적이거나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요르단에서도 정치개혁과 경제상황 개선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가 발발하고 있음.
- 왕정과 반정부세력이 대립양상을 보인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으로는 헌법 및 선거법 개정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유가동결과 물가안정 등이었음.
- 하원 내 최대 정치연대에 개혁세력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치인이 현 왕정체제하의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반정부시위가 정치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이 글에서는 요르단 총선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왕정과 반정부세력의 갈등관계를 살펴보고 선거 결과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요르단은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49위에 불과하나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흑자 교역국이며 전력·중고차 산업 등에서도 중요한 시장임(그림 1 참고).
- 특히 요르단은 중동지역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며 자유로운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에너지부문에 있어 역대 진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임.

그림 1. 한국의 대요르단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3. 2. 26).

글상자 1. 요르단 국가 개황(2012년)

- 국명: 요르단 하심 왕국(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 면적: 89,206km²(West Bank 제외, 남한 면적과 유사)
- 수도: 암만(Amman, 인구 약 227만 명)
- 인구: 약 625만 명
- 민족: 아랍인(98%), 체르케스인(Circassian 1%), 아르메니아인(Armenian 1%)
-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2%), 기독교(6%), 기타(2%)
- 언어: 아랍어(공용), 영어(통용)
- 정치: 입헌군주제, 양원제(하원은 민선, 상원은 국왕 임명)
- 경제: 실질 GDP 성장률 2.7%, 명목 GDP 311억 달러, 1인당 명목 GDP(구매력 기준) 5,966달러
- 주요 수출품: 비료, 의류, 탄산칼슘, 인산염, 채소류, 의약품 등
주요 수입품: 원유, 기계류, 차량부품, 철, 곡물 등
- 한-요르단 관계: 49위 수출대상국(13억 9,600만 달러, 전년대비 14.0% 증가)
97위 수입대상국(6,900만 달러, 전년대비 12.9% 감소)

자료: EIU(2013), "Country Report: Jordan" (January 2013);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3. 2. 26).

2. 2013년 요르단 총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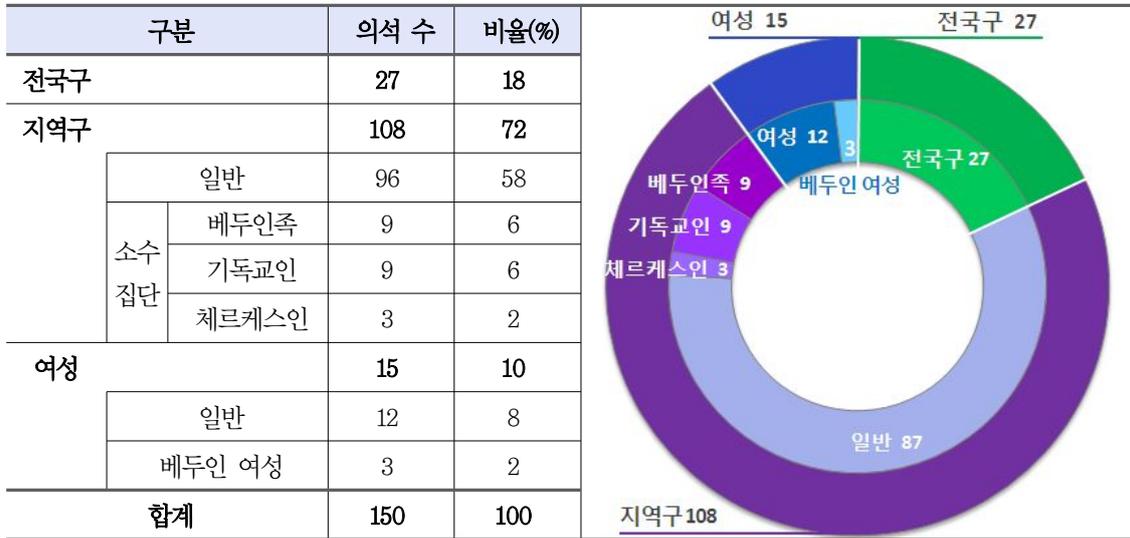
■ 2013년 1월 23일 요르단의 제17대 하원의원 선거가 치러짐.

- 이번 선거는 전국 45개 선거구 4,06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220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총 56.7%의 투표율을 기록함.
- 또한 2012년 7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직이 신규 도입되어 1인 2표제 혼합식 선거로 실시됨.¹⁾
 - 기존 선거법은 1인 1표제로 여성의원 12명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 120명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선거는 전국구 의원 27명, 지역구 의원 108명(소수집단 21명), 여성의원 15명(베두인 여성 3명) 등 총 150명을 선출함(표 1 참고).²⁾
- 한편 이번 선거는 압둘라 국왕(Abdullah II bin Al-Hussein)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16대 하원을 해산함에 따라 조기 실시되었음.
- 국왕은 대규모 반정부시위 예정일 하루 전인 2012년 10월 4일 제16대 하원을 해산하고 2014년 예정이었던 총선을 2013년에 실시하도록 명령함.
- ※ 현행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하원과 동일하게 4년임.

1) 요르단의 선거법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의회선거법 제25호(2012) (The 2012 Parliament Election Law No. 25)」, 「개정 의회선거법 제28호(2012) (The amended law of the 2012 Parliament Election Law No. 28)」로 개정되었으며 각각 6월 30일과 7월 23일에 발효됨.

2) 베두인(Bedouin)족은 이라크계 유목민으로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됨. 다수의 요르단인이 베두인 혈통이며 전체 인구의 33%인 200만여 명이 베두인으로 알려짐(후세인 1세 국왕 홈페이지(<http://www.kinghussein.gov.jo/people1.html>, 검색일: 2013. 3. 15)).

표 1. 개정 선거법(2012년)에 따른 의석 수 배분



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 선거 결과 친왕정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다수 당선된 동시에 중도개혁성향의 이슬람중도정당이 하원 내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

- 과거와 마찬가지로 왕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지역·부족 기반의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 당선됨.
- 기존 최대 야당이었던 이슬람행동전선(Islamic Action Front)의 선거 불참으로 이슬람중도정당(Islamic Centrist Party)이 17석을 확보하며 제17대 하원의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³⁾
 - 이슬람중도정당은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는 정당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3석을 확보하였고, 기타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요르단당(Stronger Jordan)', 조국당, 전국연맹당이 각 2석, 18개 군소 정당이 각 1석씩 확보함.
- 2월 16일 현재 이슬람중도정당은 가장 규모가 큰 정치연합인 조국연합(Watan bloc), 민주모임연합(Democratic Gathering bloc), 미래연합(Future bloc)과 정치연대(84석)를 구성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함(표 2 참고).
- 요르단은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않아 주로 지역·부족을 대표하는 개별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여당 역할을 담당하며 하원 내 역학구도는 선거 이후 형성되는 정치연합(bloc)에 따라 결정됨.⁴⁾

3) 현지 언론인 요르단 타임스(Jordan Times)에 따르면 이슬람중도정당의 의석수는 선거 직후인 1월 말 17석이었으나 2월 16일에 15석으로 보도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총선 이후 탈당 등 정치적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됨.

4) 정치연합은 정당과는 다른 개념의 정치협력체로 선거 이후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 형성됨.

표 2. 제17대 요르단 하원 내 정치연합 현황

정치연합	의석수		
조국연합(Watan bloc)	27	18%	■ 조국연합
민주모임연합(Democratic Gathering bloc)	24	16%	■ 민주모임연합
미래연합(Future bloc)	18	12%	■ 미래연합
자유서약연합(Free Pledge bloc)	17	11%	■ 자유서약연합
전국합의연합(National Accord bloc)	15	10%	■ 전국합의연합
이슬람중도정당(Islamic Centrist Party)	15	10%	■ 이슬람중도정당
전국연맹당연합(National Union Party bloc)	10	7%	■ 전국연맹당연합
새로운접근연합(New Approach bloc)	8	5%	■ 새로운접근연합
기타 무소속 의원	15	10%	■ 기타 무소속 의원
합계	149		

주: 2013년 1월 말 임만 제2선거구 당선 의원인 모하메드 마흐세리(Mohammad Mahseiri)가 심장마비로 별세함에 따라 현재 하원의원은 총 149명임.
자료: Neimat, Khaled(2013), "Consultations over new premier delayed by one day," *The Jordan Times*, (February 16)

- 이번 선거는 '아랍의 봄' 발발 이후 요르단에서 처음 실시된 선거로 개혁성향의 세력이 확대되는 등 역내 민주화 혁명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하원 내 최대 규모 정치연대에 개혁성향의 이슬람중도정당, 민주모임연합 등이 포함되어 제16대 하원에 비해 민주적인 정치개혁에 적극 임할 것으로 전망됨.⁵⁾
- 새로 선출된 하원의 22%(34석)가 제16대 의원인 데 반해 61%(91석)가 초선 의원으로 기존 집권세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3. 2013년 요르단 총선 쟁점

- 왕정과 반정부세력이 대립양상을 보인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으로는 헌법 및 선거법 개정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유가동결, 물가안정 등이었음.
- 반정부세력은 왕권 축소,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권리 확대를 주장함.
-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 이후 요르단에서도 노동자·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 등 사회적 약자와 좌파·이슬람주의자 등 정치적 소수집단에서 국민들의 정치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된 바 있음.⁶⁾

5) 주요 정치연합 중 이슬람중도정당과 민주모임연합만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외에는 뚜렷한 정치성향을 밝히지 않음.

-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의 최종 권한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원의 권한이 주로 법안의 승인·거부·개정 등에 한정되어 법안 발의권은 제한적임.
- 특히 무슬림형제단과 이슬람행동전선을 비롯한 반정부세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상원 직선제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여 현재 국왕이 보유한 상원 및 내각 임명권을 국민과 국회로 분산시킬 것을 요구함.
- 2012년 요르단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48점(58위)으로 부정부패가 상당한 수준이며, 반정부세력은 그 원인을 상원 및 정부 요직을 차지한 친왕정세력이라고 보고 있음.⁷⁾
- 또한 반정부세력은 △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조정 △ 전국구 의석 최소 30%(최대 50%) 배정 등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함.
- 정부가 선거구 조정 없이 전국구 의석만 17석에서 27석(18%)으로 확대하자 최대 정당인 이슬람행동전선은 이에 반발하여 선거 참여 및 정부 구성을 거부함.
- 반정부세력은 국왕의 정치개혁의 일환인 총리해임, 하원해산, 조기총선명령 등은 실질적인 개혁이 아니며 더욱 강력한 개혁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선제대응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국왕은 반정부시위 초인 2011년 2월, 사미르 리파이(Samir Rifai) 총리를 해임한 이후 2년간 총 4명의 총리를 해임함(표 3 참고).

표 3. 이람의 봄(2011) 발발 전후 요르단 총리 명단

	이름	재직기간	비고
71대	사미르 리파이(Samir Rifai)	2009.12.14~2011.2.9	-
72대	마루프 알 바키투(Marouf al-Bakhit)	2011.2.9~2011.10.24	69대 총리(2005.11.27~2007.11.25)
73대	아운 알 카사우네(Awn Al-Khasawneh)	2011.10.24~2012.5.2	-
74대	파예즈 알 타라우네(Fayez al-Tarawneh)	2012.5.2~2012.10.11	64대 총리(1998.8.20~1999.3.4), 현 왕립법원장
75대	압둘라 엔수르(Abdullah Ensour)	2012.10.11~현재	총선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재임명됨.

자료: 요르단 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gov.jo>, 검색일: 2013. 1. 3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또한 반정부세력은 유가인하, 실업률 감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0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재정 및 경상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그림 2 참고) 2011년 발발한 역내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요르단에서도 경제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함.
- 2011년 역내 정정불안으로 인해 해외근로자 송금액 및 관광수입(GDP의 20% 규모)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GDP의 12.7% 규모를 기록하였고 미국 및 유로존의 수요감소로 인해 경상적자 또한 GDP의 12% 규모를 기록함.
- 2012년 11월 요르단 정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가스와 기타 유류에 제공하던 보조금을 각각 50%, 33%가량 삭감함에 따라 유가가 급증하여 시위가 대규모로 확대됨.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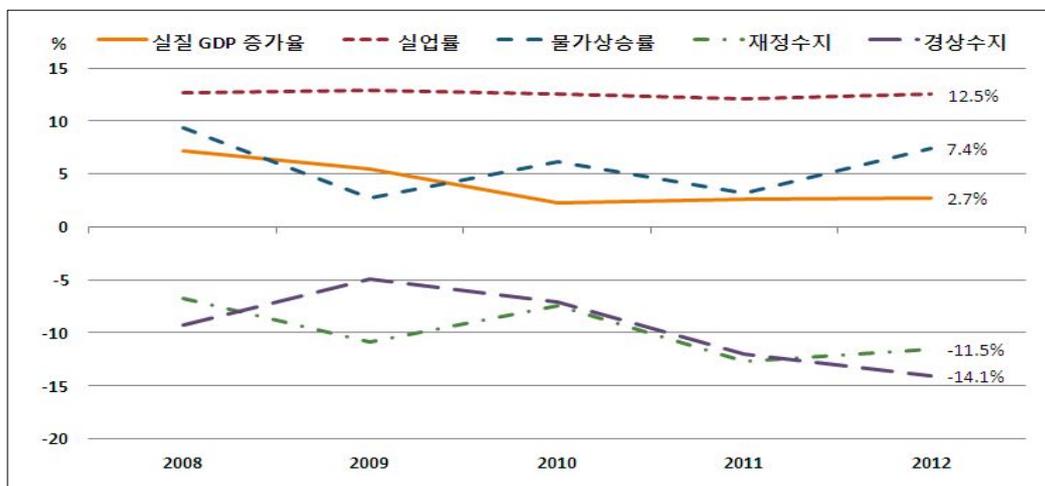
6) 요르단 본토(동안지구, East Bank) 지역·민족 출신 원주민이 주요 권력을 장악한 반면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은 피선거권이 없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매우 적음.

7)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며, 50점 미만의 국가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을 의미함.

8) Buck, Tobias(2012), "Protests in Jordan after fuel subsidy cut," *The Financial Times*. (November 14)

- 2011년 초에도 물가상승에 반발하여 반정부시위가 발생한 바 있으나 요르단 정부가 85개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공무원 월급을 1인당 28달러 인상하여 민심을 수습함.⁹⁾
- 2012년 5월과 6월 고급휘발유(Unleaded Gasoline 95)와 일반휘발유(Unleaded Gasoline 90) 가격이 각각 25.8%, 12.9% 인상된 데 이어 이번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여 민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¹⁰⁾
- 반정부세력은 빈곤문제, 높은 실업률 등 민생 현안 해결을 통한 서민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요구함.
- 2010년 기준 빈곤층 비율은 13.3%였으며, 2011년 기준 평균 실업률 및 학사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각각 12.1%와 14.1%로 집계됨.

그림 2. 요르단의 주요 경제지표



주: 1) 재정수지(원조 제외)는 2009년 이후 추정치이며, 그 외 지표는 2012년은 추정치임.

2)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는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IU(2013), "Country Report: Jordan(January)";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ctober)."

4. 향후 정국 전망 및 시사점

가. 향후 정국 전망

- 이번 선거를 통해 하원의 최대 정치연대에 개혁세력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치인과 일반 국민이 현 국왕 및 왕정을 지지하고 있어 반정부시위가 정치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개혁세력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친왕정 인물들이 하원의원에 선출되었고 요르단 본토 출신의

9) 2011년 초 요르단 정부는 반정부시위를 수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2억 8,300만 달러를 투입하여 공무원 월급 및 연금을 인상하였으나, 시위대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5,65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함. "Jordan raises salaries, pensions in face of public discontent"(2011), *Ahram online*, (January 21)

10) Central Bank of Jordan(2012), "Annual Report 2011," p. 33.

원주민들이 압둘라 국왕과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체제 변동의 가능성은 낮은 편임.

- 반정부시위의 확산과 이슬람행동전선의 대국민 선거 불참운동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2010년 총선의 53%보다 3%포인트 높은 56.7%를 기록함에 따라 이번에 선출된 제17대 하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국왕과 정부는 반정부시위대의 요구를 다소 수용한 개혁안을 발표함.

- 국왕은 제17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사법권 독립 등의 헌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의 선거법 개정 △행정부 내 권력의 균형과 분립을 통한 부정부패 방지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함.
- 국왕은 또한 신임 총리 임명 시 기존의 독단적인 임명과 달리 하원과의 협의를 통해 임명하겠다고 선언함.
 - 신정부 구성과 총리 임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왕립법원장(Royal Court Chief)인 파예즈 타라우네(Fayez Tarawneh)가 각 정치연합이 지명한 총리 후보를 검토하였으며, 3월 10일 국왕은 가장 많은 정치연합(47.0%)이 추천한 압둘라 엔수르(Abdullah Ensour) 현 총리를 재임명함.¹¹⁾

■ 새롭게 선출된 하원 또한 현 왕정체제 내에서 정치권리를 확대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하원 내 개혁세력도 압둘라 국왕의 통치와 왕정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정치권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무슬림형제단이나 이슬람행동전선에 비해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재임명된 엔수르 총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무슬림형제단 및 이슬람행동전선에 선거 참여를 독려한 중도 개혁파 인물임.¹²⁾
- 한편 무슬림형제단은 총리 임명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임명권을 국왕이 아닌 의회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2월 21일 반정부시위를 재개하는 등 정부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양상임.

■ 신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상황 개선에 주력할 것이나 세계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단기간 내에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13년 요르단은 역대 정정불안 지속과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과 유사한 3% 초반의 GDP 성장이 예상됨.
 - IMF는 기존 실업자와 매년 6만여 명의 신규 구직자를 흡수하려면 9.3%의 GDP 성장이 필요하다고 예측하였으나 2013년 GDP 성장은 3% 초반으로 전망되어 실업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¹³⁾
- 물가상승률은 보조금 철폐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6%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요르단은 2012년 IMF가 2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을 승인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확보하였으나, IMF의 요구대로 재정개혁을 실행할 경우 물가상승에 대한 추가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요르단에 유입된 시리아·이라크·팔레스타인 난민은 각각 30만 명, 45만 명,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도

11) 왕립법원(The Royal Court)은 왕실 및 중앙정부, 행정부 간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임.

12) *The Jordan Times*(2013), "House majority supports Ensour." (February 26)

13) IMF(2012), Jordan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2/119. May 2012, p. 18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난민 유입이 예상되어, 향후 요르단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¹⁴⁾

- 요르단 재계는 향후 하원이 경제성장과 경영환경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 소득세 및 판매세 등의 세법 개정 △ 공기업과 정부의 재정 관리감독 수행 △ 투자유치법 개정을 통한 FDI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요르단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지리적으로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를 거점으로 한 역내 진출이 유리함.

- 요르단은 중동지역 내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네 번째로 자유로운 기업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에 따르면 요르단은 한국(34위)보다 높은 33위에 올랐으며 역내에서는 바레인(12위), 카타르(27위), UAE(28위)에 이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요르단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실송금 전면 허용, 국내 비거주자의 외화계좌 개설 및 송금 허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다수의 외국기업들은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요르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정정불안과 치안악화로 인해 직접적인 진출이 쉽지 않은 이라크, 시리아 등에 우회 진출하고 있음.¹⁵⁾
 - 이라크는 요르단의 주요 교역국으로 2011년 수출(15.2%) 및 재수출(16.8%) 부문에서 최대 교역국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라크의 높은 재건수요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요르단 남부의 아카바(Aqaba)항은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잇는 서부 중동지역의 물류중심지로 2012년 전체 물동량이 약 82만TEU를 기록하여 역내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음.¹⁶⁾

■ 요르단은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우리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2012년 전체 수출의 6.7%(366억 달러)를 차지하는 중동지역 내 국가와 체결한 FTA가 아직 없어 요르단을 거점국가로 활용하여 대중동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요르단은 역내 국가 중 유일하게 △ WTO 가입 △ 미국·EU·범아랍권과 FTA 체결 △ 대미 관세 및 쿼터 면제지구(Qualifying Industrial Zone) 운영 등을 모두 이행하며 경제관계 다각화에 노력함.

14) 시리아·이라크·팔레스타인 난민 수치는 각각 유엔난민기구(UNHCR), 요르단 정부,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가 추산한 수치임.

15) 레반트(Levant) 지역 국가에는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가들은 정세 및 치안 악화로 외국기업이 직접 진출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

16) Aqaba Port Corporation(2012), "Monthly Statistics December 2012."

- 특히 범아랍 자유무역지대(Greater Arab FTA)에는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 예멘 등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17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한편 우리 기업은 요르단의 전력·중고차 시장 등에 진출이 유망함.

- 최근 5년간(2007~12년) 요르단의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전력소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 정부는 97%에 달하는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원자력, 비전통에너지(오일셰일(oil shale)) 등을 적극 개발하고 있음.¹⁷⁾
- 현재 한국전력은 요르단 내 민자발전소 세 곳 중 두 곳을 수주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전력시장에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점유율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임.¹⁸⁾
- 요르단은 우리나라 중고차 물량의 1/3을 수입하는 주요 교역국으로 한국산 중고차는 현지 판매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가로도 재수출됨. **KIEP**

17) 셰일오일(shale oil 또는 light tight oil)은 점토가 퇴적되어 형성된 셰일(shale, 혈암)층에 함유된 석유로 셰일층에서 직접 추출하는 반면 오일셰일은 석유가 함유된 암석을 고온 처리하여 생산함. 요르단은 세계 4위의 오일셰일 보유국으로 40억 톤의 석유와 맞먹는 약 420억 톤의 오일셰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NEPCO 2011, "Annual Report 2011," p. 12).

18) 한국전력은 현재 알카트라나(Al-Qatrana) 발전소를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디젤내연발전소인 알마나카(Al-Manakher) 발전소도 수주하여 시공 중임.